교담미와 야수다라가 수기 받다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⑲ 최초의 비구니 수기

그때 마하파사파제(교담미) 비구니는 유학 · 무학의 비구니 6천 명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일심으로 합장하고 부처님 존안을 우러러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세존께서 교담미에게 말씀하셨다.

"무슨 까닭으로 근심스러운 얼굴로 나를 보는가? 그대의 생각에 행여 내가 그대의 이름을 불러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수기를 주지 않아서 그러는가? 교담미여, 내 먼저 통틀어서 모든 성문에게 다 수기를 설하였나니, 이제 그대의 수기를 알려 한다면 장차 오는 세상에 마땅히 6만 8천억 모든 부처님법 가운데서 대법사가 될 것이며, 6천의 유학 · 무학 비구니들도 그때 함께 법사가 되리라. 그대가 이와 같이 점점 보살도 갖추어 마땅히 부처가 되어, 이름을 일체중생희견여래 · 응공 · 정변지 · 명행족 · 선서 · 세간해 · 무상사 · 조어장부 · 천인사 · 불세존이라 하리라. 교담미여, 이 일체중생희견불과 6천 보살이 차례로 수기를 받아 모두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얻게 되리라."

그때 라훌라의 어머니 야수다라 비구니가 가만히 생각하였다.

"세존이 수기를 주시되 유독 내 이름만 말씀하시지 않는구나."

부처님께서 이를 아시고 야수다라에게 이르시었다.

"그대는 오는 세상 백천만 억 모든 부처님 법 중에서 보살행을 닦아 대법사가 되어 점점 불도를 갖추고 좋은 국토에서 마땅히 부처가 되어, 이름을 구족천만광상(具足千萬光相)여래 · 응공 · 정변지 · 명행족 · 선서 · 세간해 · 무상사 · 조어장부 · 천인사 · 불세존이라 하리니 그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없는 아승지겁이니라."

그때 마하파사파제 비구니와 야수다라 비구니와 그 권속들이 모두 크게 기뻐하여 일찍이 없던 일이라 하여, 곧 부처님 앞에서 게송을 설해 사뢰었다.

"세존은 도사이시라 인간과 천상을 편안케 하시니 저희들이 수기를 받고 마음이 편안해졌나이다."

비구니들이 게송을 설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 또한 다른 국토에서 이 경을 널리 설하리다."

'권지품'에 설해져 있는 이 내용은 처음으로 비구니가 수기 받는 장면이다. 마하파사파제는 본래 부처님의 이모이자 양모였다. 그리고 난타라는 아들도 낳았다. 정반왕이 죽은 뒤 그녀는 세 번에 걸쳐 출가를 청하여 마침내 최초의 비구니가 되었다. 교담미라고 하며, 대애도(大愛道)비구니라고도 부른다. 바이살리에서 마지막 안거를 하고 쿠시나가라로 떠나가던 부처님이 3개월 후에 열반에 들 것이라고 아난에게 말한 것을 전해들은 대애도 비구니는 차마 자기보다 부처님이 먼저 열반에 드시는 것을 볼 수 없다며 스스로 자진하여 바이살리의 대림사에서 열반에 들었다고 한다.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키워준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을 볼 수 없다는 모정에 기인한 정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녀에 대해 설해 놓은 〈대애도비구니경〉이 있고 또 열반에 대해 설해 놓은 〈대애도열반경〉이 있다. 야수다라는 출가 전 부처님의 부인이었다. 그녀도 마하파사파제가 출가할 때 같이 출가하였다. 그때 석가족 여인 500명이 함께 출가했다고 한다.

이 장에서 두 비구니에게 부처님이 수기를 준 것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법화경〉의 일체가 모두 성불한다는 성불론에 의거, 여성 성불의 단적인 예를 들어 성불이 남성 위주만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보였다고 한다. 종래 일부에서 제기한 여성 성불 불가를 분명하게 일축해버린 결과가 된다. 또 하나 숨어 있는 뜻은 법화 법문을 들은 인연이 있으면 누구나 성불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성문들뿐만 아니라 오종법사(五種法師)로 밝혔듯이 수지(受持), 독(讀), 송(誦), 서사(書寫), 해설(解說)한 인연으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기를 주면서 대법사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법화경〉을 설할 대법사가 될 것이라는 말이다. 〈법화경〉이 설해져야 불법이 유통된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법화 법문을 들은 것이 성불의 가장 중요한 인연이 된다는 것을 은근히 나타내고 있다.

〈반야불교연구원장〉

탐욕 · 집착 본질부터 꿰뚫어야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⑲ 재가 보살의 정행(淨行)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불교권에서는 '대승 보살'을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여긴다. 그런데 불자들은 '재가 보살'이나 '출가 보살'이라는 용어를 낯설어한다. 아마도 사찰에서 여성 신자에게 보살이라는 호칭을 붙여서 부르기 때문일 것이다. 이로 인해 보살이라고 하면 재가 보살, 특히 여성 신자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대승 경전에는 재가 보살이 등장하기도 하고, 출가 보살이 등장하기도 한다. 재가 보살이 등장하는 대승 경전으로는 〈유마경(維摩經)〉과 〈승만경(勝鬘經)〉을 꼽을 수 있으며, 각각 유마거사와 승만 부인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처음에는 성문승(聲聞僧)을 비판하는 재가 보살이 많이 등장했지만, 점차 재가 보살과 다른 출가 보살의 역할을 강조하게 된다.

초기 대승경전 가운데 〈화엄경(華嚴經)〉에는 재가 보살과 출가 보살의 모습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정행품(淨行品)'에서는 재가 보살과 출가 보살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청정한 행을 설한다. 이 품에서는 지수(智首)보살이 부처님의 바른 깨달음의 원인이 되는 보살의 행을 묻는다. 이에 대해 문수(文殊)보살은 141가지 서원으로 보살의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을 하나씩 설한다. 다시 말해 모든 행위, 즉 육체적 언어적 의지적 행위를 순화시켜 청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141가지 서원을 세울 것을 설한다. 이 가운데 11가지 서원은 재가 보살의 실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보살이 집에 있을 때면 중생이 집의 성품이 공(空)한 줄 알아서 그 핍박을 면하길 원해야 한다. 두 번째는 부모를 효(孝)로 섬길 때면 중생이 부처님을 잘 섬겨서 온갖 것을 보호하고 공양하길 원해야 한다. 세 번째는 처자가 모일 때면 중생이 원수이거나 친하거나 평등하여 영원히 탐착을 여의길 원해야 한다. 네 번째는 만약 오욕락(五欲樂)을 얻을 때면 중생이 욕심의 화살을 뽑아 없애서 구경에 안온하길 원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즐거운 놀이로 모일 때면 중생이 법으로써 스스로 즐겨 놀이가 진실이 아닌 줄 분명히 알기를 원해야 한다. 여섯 번째는 만약 궁실(宮室)에 있을 때면 중생이 성인의 지위[聖地]에 들어서 영원히 더러운 탐욕을 없애길 원해야 한다. 일곱 번째는 영락(瓔珞)을 걸칠 때면 중생이 모든 거짓 장식을 버려서 진실한 곳에 이르길 원해야 한다. 여덟 번째는 누각에 오를 때면 중생이 바른 법의 누각에 올라서 온갖 것을 철저히 보길 원해야 한다. 아홉 번째는 보시하는 바가 있을 때면 중생이 온갖 것을 버려서 마음에 애착이 없길 원해야 한다. 열 번째는 대중이 모일 때면 중생이 온갖 모인 법[衆聚法]을 버려서 모든 지혜를 이루길 원해야 한다. 열한 번째는 만약 액난(厄難)에 있을 때면 중생이 뜻을 따라 자재하여 행하는 바가 걸림 없길 원해야 한다.

첫 번째 서원은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인 공성(空性)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것이다.

모든 존재는 고정적인 실체가 없다고 인식해야만 모든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탐욕과 집착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 억누를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모든 행위, 즉 육체적 언어적 의지적 행위가 청정해질 수 있다. 또 나머지 서원들을 살펴보면 보살은 세간에서 중생들과 어울리지만, 그들의 행동을 나무라거나 억압하지 않는다. 보살은 중생이 그런 행동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누군가에 대한 진실한 바람이 그 대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심재관 교수의 싯다르타 시대의 문화읽기

⑲ 고대 인도의 건물형태

문루 아래로 성 나간 '싯다르타'

석가모니가 성읍으로 들어와 거닐었던, 그 도시 내의 건물들은 어떠한 형태였을까. 우리에게는 적어도 기원전 2세기 이전의 건축형태가 어떠했는지 추정해볼 수 있는 고고학적 단서가 거의 없다. 마하바라따나 라마야나 같은 고대 인도의 서사시가 당시의 건물형태를 상상할 수 있는 문학적 단서가 될 것이고, 그 이후 기원전 1~3세기에 건립된 산치(Sanci)나 바르후트(Bharhut) 스투파 등에 나타난 조각을 통해서야 시각적인 단서를 얻게 된다.

만일 건축기술의 혁명적 변화가 없다면 아마도 우리는 산치 스투파의 조각을 통해서 석가모니 당시의 건축형태를 어렴풋이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건물 평면의 형태는 원형과 정방형, 그리고 직사각형 형태가 보인다. 직사각형의 평면을 갖는 건물들은 원형이나 정방형의 건물형태가 발전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규모가 더 컸을 것이다. 건물의 평면이 둥글거나 정방형인 경우는 일반 가정의 가옥형태의 형태로 단층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지붕의 크기를 확장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산치 스투파에 조각된 베산타라 자타까(Vessantara Jataka)가 묘사된 부분을 보면 일반 농가의 형태는 원형의 벽으로 초가지붕을 얹은 형태인데,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끈으로 묶어 눌러놓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지붕은 당시의 건물의 특징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읍성 내의 건물과 같이 규모가 큰 건물은 지붕의 길이도 길어지는데, 직사각형의 평면을 갖는 건물은 흔히 배럴 볼트라 말하는 긴 반(半)원통 모양의 지붕을 얹었다. 마치 둥근 드럼통을 길게 반으로 쪼개서 엎어놓은 상태가 된다. 이러한 지붕을 만들자면 지붕틀은 휨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대나무 같은 자재를 썼을 것이다. 대나무 지붕틀을 둥글게 반원 형태로 휜 다음 이것들을 일렬로 묶어주는 긴 나무나 대나무를 늑골처럼 덧대어 고정시켰다. 그 다음 덮개를 씌웠을 것인데, 아마도 그 덮개는 볏짚이나 띠풀 같은 재료를 사용했을 것이다. 지붕의 용마루 선은 따라서 볏짚이나 띠풀 등을 잡아주는 매듭 등으로 상투처럼 불쑥 올라오게 나름이다. 이러한 지붕형태는 아잔타 석굴이나 바자 석굴 등에서 보듯이 초기 석굴 형태의 천정 구조에 매우 잘 나타나 있다.

지붕의 양쪽 끝 박공 부위에는 창문을 내었는데, 당연히 반원(半圓)형태이거나 말발굽 형태의 창문을 내서 사람이 바깥을 내다보거나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흥미로운 것은 긴 반원 형태의 지붕 중간쯤에 이 지붕의 긴 축과 직각을 이루는 짧은 축의 지붕을 양쪽으로 한 개나 두 개 정도 덧대어 낸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긴 축의 둥근 지붕과 짧은 축의 둥근 지붕이 수직으로 만나게 되면 천정은 그로인 볼트와 같은 궁륭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2층 건물일 경우는 짧은 축 반원 지붕 아래쪽에는 난간이 있는 베란다를 내어 밖을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지붕의 모양이 이렇게 되면 건물의 평면은 꽤 복잡해지는데, 벽면은 리듬감 있는 요철이 나타나 단순한 직사각형의 건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읍 내에 있었던 건물의 높이는 단층건물도 있었지만 2층이나 3층 건물도 어렵지 않게 조각 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때의 건물들도 대체로 난간이 있는 베란다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반원통형 긴 지붕을 십자로 엮을 수 있다면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여 복합건물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 그러한 형태를 산치의 스투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문(城門)의 높이는 코끼리에 올라탄 사람이 충분히 통과할 만큼 높이 솟아있으며 그 문루(門樓) 위에도 역시 반원 형태의 지붕과 베란다 등이 조성되었다. 벽체와 기둥 일부는 나무와 벽돌을 이용해 조성했을 것이며, 난간과 기둥 등은 쌀라(Śala) 나무와 같이 단단한 나무를 깎고 다듬어 결구법으로 고정시켰을 것이다. 기단부는 대부분 자연석과 벽돌을 이용해 쌓았는데, 그 흔적들의 일부는 여전히 발굴을 통해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아마도 싯다르타 태자가 성 안의 사람들이 모두 잠든 밤을 틈타 성문을 빠져나갈 때, 그 때 그는 이러한 문루 아래를 통과했을 것이다.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



우리도 부처님같이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2565(202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5월 19일 (수, 음 4.8)

주 지 벽암 지홍 합장
신도회장 정광자

법회 및 기도 안내
일요법회 매주(일)10:30
호법법회 매월 첫째 주(수) 10:30
초하루신중기도 매월 음력 초하루 10:30
지장재일기도 매월 음력 18일 10:30

유관기관 안내
행원 사회적협동조합
보리수 지역아동센터
시립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시립 하안누리어린이집
시립 새론어린이집

* 템플스테이 지정사찰 *

법회일 YouTube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 진행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정사
주소 경기도 광명시 설월로58(소하2동 341-2) | www.sejon.org
전화 02)898-8200 | 팩스 02)898-1844

불기2565(2021)년 부처님오신날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호암산 호 압 사
날마다 좋은날 되세요
호압사 대중일동



서울특별시 금천구 호암로 278 (시흥동) www.hoapsa.org
전화 02)803-4779 팩스 02)891-0770